

Rossabi, Morris. 1983. *China Among Equals*.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.

발제: 최인호

출판 경위

- 10세기 14세기의 동아시아 다국가 관계에 관한 1978년 7월의 컨퍼런스 결과 출판됨.
- Fairbank의 *The Chinese World Order* 이후의 첫 전통중국 외교관계에 관한 첫 집합작업.

### Morris Rossabi, Introduction

<tributary system vs multi-state system>

- Fairbank 류의 조공체제: 중국과 이적을 연결해주는 황제의 존재, 중국문화를 통한 이적의 來化, 황제와 번신간의 불평등, 번신국은 우월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조공을 보낼 것이 요구됨. 이적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및 선물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, 책봉을 통한 국내정치적 이득 때문에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임.
- 이러한 조공체제가 작동하지 않은 multi-state system이 10세기 당멸망 이후부터 13세기 몽고의 등장까지 지속되었음.
- multi-state system에서는 국가들이 서로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었고, 중원국가들도 이 사실을 숙지하고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폈다.

### Edmund H. Worthy, JR. Diplomacy for Survival: Domestic and Foreign Relations of Wu Yueh 907-978

<이론적 시각>

- 초국가 수준에서의 재통일과 사대의 논리와 세력균형과 생존의 논리가 충돌하는 모습.
- 황제와 국왕의 관계도 실제 예법의 적용과정에서 힘의 배분상태에 따라 변화함.
- 5대 10국 시기를 중원 지역의 국내적 다중국가 체제와, 국제적 다중국가 체제의 이중적인 다중국가체제가 겹쳐진 모습으로 개념화하고, 여기에서 작동한 세력균형, 상호의존 논리 속의 吳越국의 생존외교를 조망함.
- 결국 통일의 논리가 세력균형의 논리를 이김. 세력균형의 논리는 제도화 규범화 되지 못하고 전략적인 편의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음.

<국내적 다중국가관계 907-956>

1) 세력균형과 전략적 사대의 조합

-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다중국가 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
- 북조국가-吳越국 연합 대 吳(南唐)-유목민족국가의 세력균형구조
- 오와 오월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오월국은 후량 등 북조국가와의 조공을 활용.
- 북조는 오월을 책봉하여 황제로서 정당성과 동맹국을 얻고, 오월국은 책봉을 받지 못한 다

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나은 정당성을 갖게 됨.

- 오월은 오히려 사대를 함으로서 안정적으로 국내적 자주와 안보를 확보함.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남조국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(國王의 지위 획득).
- 자우의 예로 후량으로부터 남한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, 명목상만 명령을 받들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음.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(天寶).

## 2) 세력균형에 기초한 복수적 주권국가 성립 가능성

- 후량의 황제는 천자와 오월국 군주의 禮제에 있어서 차이를 완화함.
- 그러나 지나친 황제의 예제 사용은 결국 북조국가와의 관계단절을 가져옴.
- 오월국과 오국도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를 유지했으나 예에 입각한 관계도 존재하여서 서로 공존과 mutual respect를 보여주기도 함.
- 서로 갈등을 하고 이익다툼을 하되 상대국을 정복하지는 않음. 오월국 군주가 정신질환을 앓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때 오국은 상대방의 인민의 위하여 쳐들어가지 않음.

## <국내적 다중국가 관계 956-958>

- 북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다중국가 관계가 와해되기 시작함.
- 오월국의 사대도 형식을 넘어 실질적인 복종으로 근접해감.
- 송과 오월국의 사이는 좋았으나, 오월은 자연스럽게 송에 흡수되는 절차를 밟음(신하들이 황제에게 강권하는 형식)
- 국가생존을 위한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함. 남당이 전숙에게 보내는 편지, “오늘 내가 없다면 ... 너희 또한 개봉의 일개 신민에 지나지 않을 것”p.33

## <국제적 다중국가 관계>

- 오월국은 국내적으로는 제후국의 역할을 하였지만 국외적으로는 조공을 받는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.
- 오월국은 중화국가들 중 후삼국 국가와 가장 폭넓은 관계를 맺음. 양쪽 모두 국내적 라이벌을 상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였음.
- 10세기 초부터 후백제와 조공관계를 맺음, 이후 고려 및 신라에서도 조공을 받고, 925년에는 신라에 책봉을 하기도 함.
- 거란은 일종의 역외 균형자의 역할을 함. 오월, 오 모두 상대방 견제를 위해 거란을 활용.
- 오월은 사대의 대상인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 거란을 활용하기도 하여 긴장 발생. ex) 918년에는 양(북조국가)과 오월국이 동시에 거란에 사절을 파견.